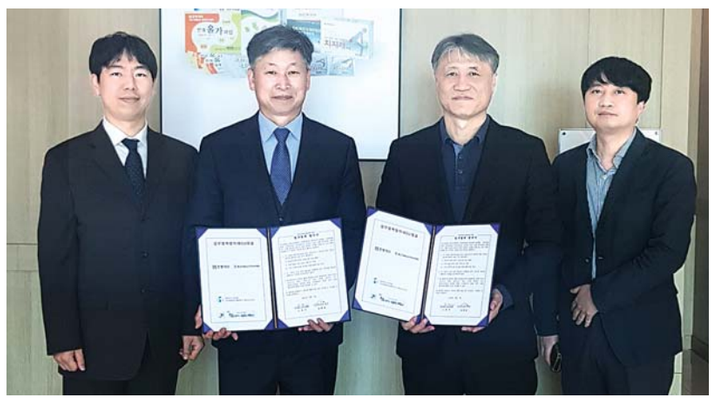
동신대 한의과대-한풍제약, 한의약 산업 활성화 협약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나창수)은 최근 (유)한풍제약(대표 조형권)과 한의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의약의 현대화·과학화를 통한 한의학 관련 분야 산업 진흥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동신대 제공〉

목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48개 시설에 소독물품

국립목포대학교(총장 박민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현영,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최근 어린이급식소 등 총 248개 시설에 개인위생관리와 감염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소독 물품을 제공했다. 〈목포대 제공〉

aT, 인삼 수출업체·나주 복지시설에 마스크 1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중국 칭다오금문상무유한공사로부터 기부받은 마스크 1만장을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수출업체와 나주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aT 제공〉

북광주농협, 코로나 확산 방지 '유튜브 정기총회'

북광주농협 노동조합(위원장 노세훈) 61명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유튜브)으로 '17기 정기총회'를 열었다. 〈북광주농협 제공〉

"GIST서 닦은 지식 하버드서 펼치렵니다"

〈광주과기원〉

해외 9개 명문대서 박사 과정 제안 받은 천체물리학도 조혜린 씨

지난해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 세계 대학이 주목
교수진·연구의 폭 넓은 하버드 선택…블랙홀 관심

하버드대, 캘리포니아 공대(칼텍), 프린스턴대, 캐나다 토론토대, 호주 커틴대 등 무려 9개 유명 대학에서 박사과정 입학을 제안받았다.

이 행복한 선택지의 주인공은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김기선·이하 지스트) 학사과정을 마치고 지난 2월 졸업한 조혜린(여·23)씨. 그는 지스트에서 물리학(지도교수 김근영 물리·광과학과 교수)을 전공했다.

조씨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천체 물리학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세계 어떤 대학보다 많은 교수진을 갖고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연구의 폭이 넓다. 박사과정 중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버드대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출신인 조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천체물리학에 관심이 깊었다. 지스트에 입학한 뒤, 천체물리학을 배우기 위해 지스트 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경험의 폭을 넓혔다.

칼텍에서 고에너지 이론천체물리학 분야에 대해 연구했으며, 호주 CRAFT 팀 일원으로 관측천체물리학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올린 것이 입학에 큰 도움이 됐다. '빠른 전자 폭발 신호로 밝혀진 질량이 큰 은하 외곽 헤일로(halo)의 낮은 밀도와 자화(magnetization)'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사이언스지에 공저자로서 이름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천체물리학 저널 회보'(Astrophysical Journal Letters·SCI 논문)에 제1저자로 후속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연구였어요. 칼텍에서 있을 때 우연히 천체물리학을 접했고, '재밌다. 더 해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천체물리학을 가르쳐 주던 분을 따라 호주까지 가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조씨는 지스트에서의 연구·논문 출판 경험, 김근영 지도교수의 연구지도 등도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돌아봤다. 학과 선택에 대한 의구심,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막막할 때 지스트 교수와 자주 상담하며 진로를 잡아나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조씨는 "교수님의 도움과 지스트대학의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덕분에 세계의 우수한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며 모교에 감사를 표했다. 조씨는 지난 2월 학위수여식에서 지스트 미래인재상, 우수논문상, 쿰 라우데(우등졸업) 등을 받았다.

하버드대에서는 평소 관심있던 분야인 블랙홀 연구에 발을 디딜 생각이다. 블랙홀 주변에서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빨려들어가며, 어떻게 관측할 수 있는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천체물리학적 고에너지 현상 등 천체물리 연구를 마음껏 하는 게 꿈이다. 그는 "한국과 달리 미국 물리학계에서는 석사 과정 없이 곧바로 박사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스스로도 박사 과정을 배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지원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사 과정을 넘어 박사후 과정까지, 그 이후로도 힘든 일이 많겠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낼 생각입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지금까지 해 왔듯 앞으로도 제 길을 잘 따라 가겠습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애끓는 그리움 노래가 되어…

세월호 유가족 416합창단, 노래·이야기 담은 CD·책 펴내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절대로 잊지 않을게/ 꼭 기억할게 다 기억할게/ 아무도 외롭지 않게" (노래 '잊지 않을게' 중)

다시 4월이 왔다. 4월이면 그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눈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바다에서 벌어진 참혹한 죽음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날과 계절이 4월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다. 아이를 바다에 떠나보낸 세월호 유가족이다. 울고 울고 또 울다가 엄마·아빠들의 통곡은 마침내 간절한 노래가 되었다.

416합창단은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 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단원이 함께 화음을 맞춰 노래한다. 세월호 엄마·아빠들의 작은 노래모임에서 출발해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는 현장은 물론, 이 땅에서 상처받고 소외되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노래를 불렀다.

노래모임이 생긴 때는 세월호 참사의 해인 2014년 12월. 이후 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은 물론 외국에서 270여 회 크고 작은 공연을 했다.

세월호 참사 6주기 추모일을 앞두고 416합창단의 노래와 이야기가 담긴 책과 CD가 나왔다. 수록곡은 '잊지 않을게', '어느 별이 되었을까', '약속해', '그대 눈물 마르기 전에, '노래여 날아가라' 등 모두 10곡. 한결같이 애절하면서도 아름다운 이들 합창곡은 CD에 수록돼 책에 희생자 가족과 단원의 소회와 함께 실렸다.

책 제1부 '노래여 날아가라'는 합창단이 부른 10곡을 이야기와 함께 담았고, 2부 '슬픔이 슬픔에게 고통이 고통에게'는 작가 김훈 씨와 김애란 씨가 416합창단에 보낸 에세이로 구성됐다.

제3부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등 416합창단이 달려가 연대한 아픔의 현장 기록이며, 4부 '하늘로 간 우체통'은 세월호 엄마·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보내는 손글씨 편지들을 묶었다. CD에는 이 육성편지 내용도 담겼다.

김씨와 김애란 작가는 이번 책을 위해 쓴 글의 원고료와 인세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합창단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모두 기부키로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유도회 "코로나 극복" 체육관 12곳에 지원금 전달

광주시유도회(회장 염창곤·사진)가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체육관 지원에 나섰다.

유도회는 지난 7일 염창곤 광주시유도회장을 비롯해 12개 체육관 관장, 유도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운영 지원금 50만원 씩을 전달했다.

유도회는 모두가 힘든 시기에 유도회 차원에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체육관 관계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염창곤 회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유도인의 정신으로 희망을 잃지 말고 다 같이 힘을 내자"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MLB 전설 루 게릭 방망이 경매서 12억5천만원에 팔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전설적인 타자 루 게릭이 사용했던 야구 방망이가 비싼 값에 팔렸다.

ESPN 등 현지 매체는 9일(한국시간) "최근 한 소장가는 루 게릭이 1922년부터 사용했던 배트를 미국 헤리티지 경매사로부터 102만5000 달러(약 12억5000만원)에 구매했다"고 전했다.

루 게릭은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다. 1923년부터 1939년까지 양키스에서 17시즌 동안 통산 타율 0.340, 493홈런의 기록을 남겼다. /연합뉴스

초록어린이재단, 취약계층 80세대에 '그린식품키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은영)가 최근 코로나19 취약계층 아동 가정 80세대에 '그린식품키트'를 추가 전달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그린식품키트 사업은 지역사회 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아동 가정에 20만원 상당의 긴급구호 식품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손가정 및 한부모 가정 441세대 지원이 목표로, 이번 후원은 지난달을 잇는 2차 후원이다. 이로써 총 182세대에 3640만원 상당의 식품 키트가 전달됐다. 〈사진〉

2차 후원물품은 광주신세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아시아문화원 임직원, 전남대학교병원 볼링동호인회, 광주안과의원, 맘스팡, 한전KPS(주)광주송변전지사, 이마트광주점, 광천교회 찬양팀의 참여로 마련됐다.

그린식품키트는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등의 감염예방용품 및 밥·국·반찬을 포함한 간편조리 식품뿐만 아니라 비타민·영양제 등이 포함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김환국(㈜금광공사 대표)·김순씨 장남 형남군, 고정주(㈜나영산업 대표)·박화자씨 차녀 주리양=11일(토) 오후 5시30분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 웨딩홀.

▲박형래(전 대한석탄공사 국장)·이귀례씨 장남 노익군, 배승수(광주영어방송 사장)·고은숙씨 장녀 윤경양=11일(토) 오후 2시 서구 광천동 웨딩그룹 위더스광주 5층 엘린홀.

▲강동완(전 조선대 총장)·박광미씨 장남 병문군, 한종상·노명숙씨 장녀 현정양=12일(일) 오후 3시 더케이호텔 서울 3층 크리스탈볼룸.

알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목요일에 만나는 희망 가족교육 참여자=3월 19일~4월 16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층 062-526-337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스마트폰 활용가능자 수시모집, 5~6명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인생2막 생애재설계, 은퇴 신중년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여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3D프린팅분야 교육과정 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3D프린팅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